

사회 문화

뿌리 뽑기

이름 :

Contents

1. Intro & Caution
2.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3. II 개인과 사회 구조
4. III 문화와 사회
5.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6. V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7. VI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Intro

이 책은 2020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 문화 수험생을 위한 자료입니다. 저자는 여러 수험생을 위한 사이트나 여러 교재들을 접해 본 뒤에, 사문 만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보았습니다. 수험생들중 일부는 “사회 문화는 생운과 더불어 정말 쉬운 과목이다.” 또는 “사회 문화는 말장난이 심하고, 수학을 못하면 도표.통계는 풀기 힘들기 때문에 만점을 받기 힘든 과목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사회 문화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말장난을 피하는 법을 알고, 도표.통계에 대한 완벽한 연습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문화는 도표.통계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타임 어택이라는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할까.. 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답은

“완벽한 선지 분석을 통해 어떤 선지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자!”

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 수능을 치면서, 저 혼자 정리한 선지 분석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도표.통계 문제를 완벽하게 다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선지 분석 자료는 사회 문화 시험을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헛갈려 했던 선지들, 지엽적인 선지들, 반드시 수능장에 알고 가야 할 선지들, 등등..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표.통계 문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선지 분석을 토대로, 도표.통계 문제의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 진다면, 수능장에서 당당히 만점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회 문화에서 17 문제는 개념 적용 문제이고, 3 문제는 도표.통계 문제로 등장하는게 추세입니다. 도표.통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챕터도 마련되어 있으니, 정말 도표.통계에 대해 자신이 푸는 풀이에 확신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제가 문제 풀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치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기출문제집과 이 자료를 합친 시너지는 엄청 날 것이고, 이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을 전부 숙지한다면 어떤 메이저 시험이든 다 뚫릴거라고 자부합니다. 수능 치는 그 날까지 불안감 없이 달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Caution

이 자료는 수능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전적인 선지 분석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개념을 꼼꼼하게 1 회독 이상 한 상태에서 보시는게 좋습니다. 위에서 이 자료는 수능 사탐 만점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설 및 봉투 모의고사에 나온 선지까지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 지엽적이고 수능을 위한 큰 도움을 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기출과 EBS 만 꼼꼼히 분석해도 사탐 만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엽적인 선지까지 건드느냐..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 올 수록 특히 사탐에 대해 예민해지고 이것까지 안 보면 수능에서 틀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N 수생 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어 볼 만한 생각이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수능 직전에 선지 분석 모음 자료를 만들었는데 되게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한 채 이 자료와 함께라면, 수능 사탐 만점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 번 정독하시고, 모의평가나 수능 시험장에 들고 갈 훌륭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감히 말하건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보다 기출에 대해 완벽하게 해석 했다고 자부하며, 여기 있는 개념 그 이외의 것은 수능에서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EBS 에서 수능에 나올 만한 선지는 짚어드릴 테니 이외의 지엽적인 선지가 나온다면 기출과 비교해서 거르셔도 됩니다.

오탈자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https://open.kakao.com/o/sPdAcp8>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 (1)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 (2)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 (3)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

이 단원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 하는 소재는 자연 현상 vs 사회.문화 현상,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사회.문화 연구 방법 (양적 연구 vs 질적 연구), 자료 수집 방법, 탐구 태도 및 연구 윤리가 있습니다.

1. 수능 사문 1 번 문제를 대할 때는 신속하되, **최대한 정확하고 신중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수학 2, 3 점 문제를 풀 때도 적용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관점 파악 문제는 답이 선명하고 필연적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90%를 상회하는 반면에, 1 번 문제는 평가원.수능 정답률이 60%-80%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1 번 문제의 절대적인 난이도가 어렵다기 보다는, 실수로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출이 어디까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제발 덤벼대지 말고**), 인간의 개입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사문 현상 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인과 관계**는 자연 현상, 사문 현상 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인과 법칙**은 자연 현상에서 **만** 등장합니다. (이는 사문 현상의 목적 법칙이랑 반대되는 개념이고, 법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3. 자연 현상의 영향을 받은 사문 현상 (기후 변화로 인한 나무 심기 행사) 과 사문 현상의 영향을 받은 자연 현상 (과도한 자원 낭비로 인한 기후 변화) 가 등장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둡시다. (참고로 과거 평가원 문제 중에 지진 해일로 인해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자연 현상의 영향을 받은 사문 현상으로 처리했습니다.)

4. 다음과 같은 단어가 문장 속에 있다면 꼼꼼하고 신중하게 대응합시다. (**반드시 속지**)

1) 필연적 : **기능론**은 사회 계층과 사회 불평등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고, **갈등론**은 사회 변동, 사회 갈등, 대립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2) 지배 : **기능론**은 주로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 ~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 라고 말하지만, **갈등론**은 **지배 집단**의 규범 ~ (그들만의 합의) 라고 말합니다.

3) 강제성 : 사회 구조의 **강제성** 이라고 나오면 **거시적 관점**으로 처리되지만, 지배 집단의 **강제성** (실제 기출 선지는 아니지만 앞의 말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며, 이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억압, 규제라고 생각합시다.) 은 **갈등론**으로 처리됩니다.

4) 상호 : 제도 (기능, 구성요소) 들의 **상호** 의존 (보완) 적 관계는 **기능론**으로 처리되지만, 개인 간의 **상호** 작용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으로 처리 됩니다.

5.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라고 알 수 있는 표지들을 알아 둡시다

다양성, 상대성, 가변성, 주관적, 거울 자아, 공유된 현실, 반응, 능동적 주체, 사회적 시선, (사회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내린 상황 정의

6. 갈등론: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7. 시험에서 나오는 모든 연구 결과는 **일반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합시다. (연구 대상을 한정 시키고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표본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8. 양적 연구: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부터 **분리** 되어 있다, 인간의 행위를 내적 동기와 **분리** 한다, 사실이나 현상을 가치와 **분리**한다.. 모두 맞는 선지입니다. (양적 연구는 감정 이입을 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9. 양적 연구는 자신이 선택한 변수만 포착하여, 현상을 최대한 **단순화** 하려 하는 반면,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포착하여 현상의 **복잡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10.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의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

연구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300 명, 500 명) 실험법이 아니라 질문지법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시문을 잘 독해 한다면 이런 의심이 필요 없겠지만, 이론상 다수의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질문지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또한 **질문지법은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라는 용어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 (정답률 18% 문제)

11. 양적 연구는 행위 자체를 분석하지만, 질적 연구는 인간 행위의 내면, 동기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

12. 가설 검증 = 가설 수용 + 가설 기각 (꼼꼼하게 파악하고, **무관한 가설과 연결하지 않는 것**에 주의합니다 . 참고로 이 때문에 2019 학년도 9 월 2 번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

13. 모집단과 표본집단,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범주 설정을 명확하게 합니다 .
(밑줄 어디까지 그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

14. **2018 학년도 9 월에 정답률 20% 대를 기록했던 연구 과정 문제**를 유심히 봅시다 .

1) **선행 연구와 선행 연구 검토**는 엄연히 다릅니다 . 선행 연구 검토는 2 차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헌 연구법만 가능합니다 .

2) **양적 연구 절차를 완벽하게 숙지** 해야 합니다 .

(주제 설정 --> 선행 연구 검토 --> 가설 설정 --> 연구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가설 검증 --> 결론 도출 및 일반화 --> 대안 모색)

15. 양적 연구는 주관적 가치를 측정하여 규칙성을 도출 합니다 .

(이 선지에서 다시 양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

16.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 실 > 질 > 면 > 참

(가장 기본적인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 이는 비구조화, 비표준화 정도와 정반대입니다 .)

17. 윤리적으로 문제시될 소지가 가장 높은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입니다 .

18. **가치 개입**은 주제 설정, 가설 설정, 연구 설계, 대안 모색 단계에서 나타나고,

가치 중립은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19. 질적 연구는 무조건 **귀납법만** 을 사용하지만,

양적 연구는 가설 설정에서 가설 검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역법도** 사용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는 **연역.귀납법 모두** 사용합니다.

20. 탐구 태도, 연구 윤리 문제는 도덕 시험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인 독해력이 요구되는 문제죠. 하지만 성찰적 탐구 태도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 깊게 공부합시다.

성찰적 탐구 태도는 ‘오직 반성적 태도’ 라고 오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찰적 탐구 태도임을 나타내는 선지는

사회.문화 복잡성을 인정하고, 내면의 원인을 파악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의문시하며,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연구를 되돌아 보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II 개인과 사회 구조

- (1) 인간의 사회화
- (2)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 (3) 개인과 사회의 관계, 이탈 행동

이 단원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 하는 소재는

사회화, 지위와 역할, 사회 집단, 사회 조직,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 실재론 Vs 사회 명목론), 이탈 행동 (아노미론, 차별적 교제이론, 낙인 이론), 관료제와 탈관료제가 있습니다.

1. 예기 사회화이면서 동시에 재사회화가 되는 것이 존재하며, 이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코치 연수)
2. 역할에 대한 보상, 제재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제재가 맞는 표현)
3. 소속 집단을 따질 때는 현재 그 사람이 소속된 집단이 맞는지 확인하고, 준거 집단을 따질 때는 그 사람이 속하고 싶어하는 집단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4. 소속 집단이면서 동시에 준거 집단일 수 있습니다. 지금 속해 있는 소속 집단에서 계속 소속하고 싶으면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는 셈입니다.

5. 역할 갈등은 서로 다른 역할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내적 갈등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진로 고민은 역할 갈등에 속하지 않습니다.
(과거 기출에서 등장하는 역할 긴장, 역할 모순은 수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6. 교과서나 EBS 를 활용해서 각 사회학 용어들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사회라고 출제되는 선지도 있지만,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집단 이라고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지위 Vs 역할 (주로 명사로 나옴, -하는 일)

Vs 역할 행동 (주로 동사로 나옴, -일을 했다.)

Vs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 제재 범주 구분 확실하게 합니다.

8.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선지 정리

사회 실재론

(거시적, 사회 구조는 불가항력적, 사회를 개인으로 환원 X, 구속성, 조직력, 사회의 영속성, 제도.정책 개선)

Vs 사회 명목론

(미시적, 사회 계약설, 사회를 개인으로 환원 O, 자율성, 능동성, 주관적, 개인기, 인재, 의식 개선, 개인주의,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

9.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규범은 낙인 이론에서 **틀린 선지**입니다.
아노미론과 차별적 교제이론은 객관적인 규범이 존재합니다 .

10. 예시를 통해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범주 구분하기
아래에 있는 예시들은 어떤 시험을 치더라도 해당하는 사회 집단에 알파벳 표시를 합시다. 또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합시다.

A 가족 (문중, 집성촌), B 조기 축구회 (친목회, 동호회),
C 사내 동호회, D 회사, E 환경 단체, F 학교 (직업 훈련소),
G 회사 내 노동조합

- 1) 사회 **집단** (a b c d e f g) Vs 사회 **조직** (b c d e f g)
- 2) **1 차적** 사회화 기관 (a) Vs **2 차적** 사회화 기관 (b c d e f g)
- 3) **공식적** 사회화 기관 (f) Vs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a b c d e g)
- 4) **공동** 사회 (a) Vs **이익** 사회 (b c d e f g)
- 5) **1 차** 집단 (a b c) Vs **2 차** 집단 (d e f g)
- 6) **공식** 조직 (d e f g) Vs **비공식** 조직 (c) Vs **둘다 아님** (b)
- 7) **자발적 결사체** (b c e g) 친목 집단 (b c) Vs 시민 단체 (e) Vs 이익 집단 (g)
- 8) **공식 조직** 내에 있는 **자발적 결사체** 는 모두 **비공식 조직** 이다 (X)
회사 내 노동조합 (g) 은 공식 조직 내에 있는 자발적 결사체지만 공식 조직에 속합니다.

11.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미시적 관점에 대한 설명) 낙인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 모두에 속하지만,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고 하는 건

(일탈 집단과의 교류) 차별적 교제 이론에만 속합니다.

12. **차별적 제재**로 인해 일탈 행동을 반복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사회적 처벌이나 따가운 시선을 설명하므로 낙인 이론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13. 일탈 이론 중에서 갈등 이론은 지배 집단과의 가치 갈등이라는 선지로 주로 등장합니

다. (주로 오답 선지를 구성)

14. 깨진 유리창 이론 (수능 직접 출제 X)

: 최초의 일탈을 방치하면 또 다른 일탈로 이어진다. (주로 오답 선지를 구성)

15. 관료제, 탈관료제 **모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모두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공식 조직)

16 번 부터는 비기출 포인트 입니다.

16. 자기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관료제가 높지만 (깊이),

회사 전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탈관료제가 더 높습니다 (넓게).

17. 아노미론은 사회 규범의 부재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특정 계층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계층에 한정한다면 갈등 이론에 관한 설명이 될 겁니다.

18. 낙인 이론은 1 차적 일탈보다 2 차적 일탈의 심각성을 더 강조합니다.

III 문화와 사회

- (1) 문화의 이해
- (2) 문화 이해의 태도
- (3) 하위 문화와 대중 문화
- (4) 문화 변동과 한국 문화의 변화

이 단원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 하는 소재는

문화의 의미, 종류, 속성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전체성, 변동성)
문화 이해의 관점 (총체론, 비교론, 상대론적 관점), 문화 이해의 태도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하위 문화와 반문화, 문화 변동 (요인, 양상) 이 있습니다.

**문화 파트 쉽다고 얕보지 말고 모든 것을
꼼꼼하게 공부합시다 .**

1. 시험에서 출제하는 문화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헛갈린다면 ,
주로 문화- 로 나오는 것 (문화재) 은 좁은 의미의 문화 (평가의 대상) 으로 생각하고
주로 -문화로 나오는 것 (청소년 문화) 은 넓은 의미의 문화 (이해의 대상) 로 생각합시다 .
물론 이것은 스킬이지만 ,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면 직관적으로 구별합시다 .
2. **문화의 속성** 을 완벽하게 알아둡시다 .

1) **공유성** : 구성원 간의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 (구속성), 공통적인 생활 양식,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함, 원활한 사회 작용, A 국의~, 서로 다른 사회를 구분, 다른 문화에 대해 어색함을 느낌 (자문화 중심주의는 아닙니다), 사회 질서에 기여하는 행동

2) **학습성** : 후천적 습득, 사회화

3) **축적성** : 경험과 상징을 통해 세대 간 계승, 전승, 추가, 이전 문화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창출, 복잡하고 풍부해짐, 인류 문명 발달

4) **전체성 (총체성)** : 부분들이 모여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만듦, 문화 요소들의 연쇄적인 변동 (변동성 X), 밀접하게 연관 (상호 연관성), 다른 문화 요소와 관련을 맺음, 문화 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 X, 유기적인 결합

5) **변동성** : 기존 요소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요소가 만들어짐, 내용과 형태가 시간에 따라 변함, 발전 Or 퇴보, 변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

보편성은 주로 오답 선지를 구성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

4. **문화 이해의 관점**을 완벽하게 알아둡시다.

1) **총체론** : 부분이 아닌 전체, 상호 유기성, 전체적인 맥락 (전체와의 관계 속) 에서 이해, 유기적 관계, 연쇄적, 문화 요소 간의 연관성, 문화에 대한 편향되고 왜곡된 이해를 방지

2) **비교론** : 보편성과 특수성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 다른 문화를 거울 삼아 자기 문화를 이해, 자문화 중심주의를 방지

3) **상대론** : 사회의 특수한 환경,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 사회적 맥락, 문화 창유자의 입장에서 파악

5. 문화 절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 문화 사대 주의) 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하고 (이해의 대상 X) 발전 수준의 차이로 문화를 인식합니다 .

6. **자문화 중심주의** 는 문화적 마찰을 일으키고 , 지나친 내집단 의식을 통해 자기 문화를 일반화하려고 합니다 . 이는 **국수주의** 에 빠지게 하고 결국 **문화 제국주의** 로 이어집니다 .

7. **문화 상대주의** 는 타 문화를 사회의 내부자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

8.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 타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합니다 . (수능 직접 출제 X)

9. 사회가 복잡해 질수록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에 수렴한다는 선지는 무조건 틀린 선지입니다 . (오히려 중심으로부터 흩어짐)

10.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와 공통 요소를 가집니다 . (당연한 선지)

11. 모든 하위 문화의 총합이 전체 문화는 아닙니다 . (당연한 선지)

12. 하위 문화와 전체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

13. 침략 , 강요 , 제국주의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강제적 문화 접변** 인지 알 수 없습니다 . (보통 틀린 선지를 구성)

14. **문화 융합** : 원래 문화가 있는데 다른 문화 요소를 가져와 짬뽕시킴
(칠성각 , 헬레니즘 , 양념치킨 , 결혼식 문화 , 돌침대 , 라이스 버거 등)

Vs 자극 전파 (전파 + 발명) : 원래 문화가 없는데 다른 문화 요소의 영향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냄 (이두)

15. 문화 지체 현상은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주로 오답 선지를 구성합니다.

16. 도식화된 문화 변동 문제를 풀 때 어떤 요인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각주를 참고해서 문화 융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파악합니다. (서두르지 말기)

17. 문화 융합, 병존은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 있습니다.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 (1) 사회 불평등의 의미와 관점
- (2)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
- (3) 사회 불평등의 여러 형태
- (4) 사회 복지와 사회 제도

이 단원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 하는 소재는

사회 계층화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 계급, 계층 이론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빈곤 유형 (절대적, 상대적) : 자료 분석보다 특징에 주목
사회 보장 제도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계층 이동 자료 분석 및

도표통계 특강은 다음에 자세히 다룹니다.

1. 계급 이론 (일원론), 계층 이론 (다원론) **모두 경제적 요소를 반영** (경제적 요소와 관련) 하지만 **계급 이론**에서는 경제적 요소가 **절대적 (결정적)** 인 역할을 합니다.

2. **계급** 이론 : **갈등론** base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 양립 X)

계층 이론 : **기능론** base

3. **계층 이론** : 현대 사회의 **지위 불일치 현상** 설명,
가난하지만 사회적 지위 (명망) 가 높은 사람

4. 베버의 계층론을 근거로 한 주관적 계층 인식과 실제 계층을 비교하는 문제를 풀 때,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표 옆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적도록 합시다.

50 점을 향하는 길은 속도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5.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이다. : 계급 이론 (갈등), 계층 이론 (기능) **모두**
사회 불평등은 **필연적**이다. (필수 불가결하다) : **계층 이론 (기능)** 만

6. 제한 (폐쇄) 적인 사회 이동 : 계급 이론
자유로운 (개방적인) 사회 이동 : 계층 이론

7. **기능론** : **차등** 보상이 좋다. (사회적 기여도, 능력에 따른 보상)
갈등론 : **균등** 보상이 좋다. (직업의 귀천 X, 사회 불평등을 극복하자)

8.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생각하고 풀시다.

9. 선진국에서는 비교적 상대적 빈곤의 비율이 절대적 빈곤의 비율보다 많고,
후진국에서는 비교적 절대적 빈곤의 비율이 상대적 빈곤의 비율보다 많습니다.

10.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은 빈곤 가구의 비율보다 **항상 낮습니다.**

11.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일치하면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도 성립)

(모 선생님께서 이는 틀린 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같지만 최저 생계비가 150 만원이고 중위 소득의 절반이 150 만 10 원이면 빈곤선은 서로 다르겠죠. 하지만 평가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에서 임금은 연속적으로 분포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런 선지가 나온다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12.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모두 객관적 빈곤** 이라서, 개인의 체감이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기준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13.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 빈곤 가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는 가구가 절대적 빈곤 가구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14.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합이 그 나라의 전체 빈곤율이 아니라,** 둘 중 더 높은 것이 그 나라의 전체 빈곤율입니다.

15. 소득 재분배 효과는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는 있지만, 사회 서비스는 없습니다. 또한 **공공 부조가**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큼니다.**

16. 사회 보장 제도 예시 **충분히** 익히도록 합시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국민연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회 보험)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제도** (공공 부조)

/ **노인 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

17. 사회 보장 제도 모두 수혜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8. **사회 보험**은 개인과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고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
공공 부조는 전액 국가, 지자체가 부담하고 (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름)
사회 서비스는 국가, 지자체, 민간 차원에서 재원을 부담합니다.

19.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사회 보험 > 사회 서비스 > 공공 부조 순입니다.

20. 시험에서 **임의 가입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선지**입니다.
사회 보험은 강제 가입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민간 보험은 임의 가입의 특징을 가집니다.)

21.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과거 기준)

V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 (1) 사회 제도의 이해
- (2) 가족 제도의 이해
- (3) 교육 제도의 이해
- (4) 대중 매체의 이해
- (5) 종교 제도의 이해

이 단원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 하는 소재는

가족의 형태 (1,2,3 세대, 핵가족, 확대가족, 기타 가구)
가족.교육.종교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대중 매체 (인쇄, 음성, 영상, 뉴미디어) 가 있습니다.

1. 부부 가구는 1 세대 핵가족 입니다.

2. 가구 당 인구수

- 가족 : 최소 2 인 (1 인 가구는 가족 X)
- 1 세대 핵가족 (부부 가구) : 2 인
- 2 세대 : 최소 2 인 (한 부모 가구)
- N 세대 : 최소 N 명
- 1 인 가구 : 1 인

3. 산업 사회는 농업 사회에 비해서 가족 구성원 간 수평적 의사 결정 구조가 일반적이고, 종교적 의례 기능이 낮아 졌으며, 경제적 생산 기능과 노인 부양 기능이 낮아 졌습니다. 또한 확대 가족의 비율에 비해 핵가족의 비율이 늘어 납니다.

4. 가족 문제에 대해서 **기능론**은 역할과 기능의 쇠퇴, 가족 해체의 결과로 가족 형태가 변화했다고 보며, 이는 다른 사회 문제를 유발 했다고 봅니다.

반면 **갈등론**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인 관계를 말하고,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가족 문제는 **불평등 구조**를 해체해야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5. 교육의 **계층 재생산 기능 수행**을 강조하는 것은 **갈등론**입니다. (세습, 그대로 물려줌)

6. **교육 접근 기회의 평등**은 교육의 기반 시설을 마련해주자고 합니다.

(점자 수능 시험지, 무상 교육, 의무 교육, 통학 버스, 입학금 지원)

한편 **교육 결과의 평등**은 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중시합니다.

(무료 특별 수업, 학습 도우미 파견) 이는 역차별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7. **기능론**은 접근 기회의 평등만을 중시하지만,

갈등론은 접근 기회의 평등을 바탕으로 결과의 평등을 중시합니다.

(결과의 평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8. **갈등론**은 종교가 **사회 구조적 모순**을 은폐한다고 봅니다.

9. 조손 가구는 2 세대 가구 지만 비친족 가구입니다. 또한 형제 가구는 1 세대 가구 지만 비친족 가구입니다. **비친족 가구인지의 판단을 각주를 통해서 파악합시다.**

10. **여론 조작의 가능성 (대중 조작의 도구)**는 모든 대중 매체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타 대중 매체에 비해 뉴미디어에서는 약하게** 나타납니다.

(양방향적 의사소통이 발생하고, 정보 생산자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11. **정보 전달의 동시성** : 라디오, TV, 뉴미디어 (전파 타고)

정보 전달의 비동시성 : 신문 (차 타고)

정보 획득의 동시성 : 라디오, TV (그 시간대에만)

정보 획득의 비동시성 : 뉴미디어, 신문 (언제든지)

VI.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 (1) 사회 변동과 근대화
- (2)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 (3) 현대 사회의 변동과 대응

이 단원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 하는 소재는
→ 사회 변동 이론 (진화론, 순환론), 근대화를 설명하는 관점 (근대화론, 종속이론), 농업 vs 산업 vs 정보 사회가 있습니다.

1. 진화론, 순환론은 거시적 관점.

(∵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미시적 관점은 사회 변동을 다루지 않습니다.)

2. 사회 변동에 방향이 나타난다. → 진화론, 순환론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나타난다. → 진화론

사회 변동에 **일정한 양상**이 나타난다. → 진화론, 순환론

사회 변동에 **일정한 양상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 순환론

3. 순환론은 사회 변동할 때 성장 과정이 나타남을 부정. (X)

(당연한 선지. 성장과 쇠퇴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4. 사회 변동 이론, 근대화를 설명하는 관점 범주 착오 주의

(+ 진화론 → 근대화론 → 문화 제국주의, 갈등론 → 종속 이론 ← 순환론의 영향 X)

5. 급격한 사회 변동 by 갈등론

점진적 사회 변동 by 기능론 (나오더라도 주로 오답 선지를 구성함)

6. 인간의 의지로 사회 진보를 지속할 수 있다. → **진화론** (∴ 순환론 → 운명론)

7. 사회 발전을 위해 서구 선진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 근대화론 O, 종속 이론 X (대립, 갈등, 종속)

8. 근대화론 (국가 내부 요인으로 인한 **미발전 상태** → 전통, 근대 양립 X)

Vs 종속 이론 (국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저발전 상태**)

9. 근대화론 : 저발전의 원인을 **서구화의 실패**에서 찾음 (후진국 탓)

→ 교육청 문제이지만, 저발전이 들어갔다고 모두 종속 이론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고 판단합시다.

10. 신근대화론 (현행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과거 기출용)

→ 전통과 근대의 공존 및 보완 관계 강조, 다양한 근대화 가능성 인정

11. 산업 구조의 **고도화** (**관료제화** 정도와 다름) : 정 > 산 > 농

12. 사회 변동은 예측 (대응) 이 가능하다 (용이하다). → 진화론 O, 순환론 X

→ 답지의 설명에 따르면 '순환론은 앞으로의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수능에서는 순환론이 단기적 미래 예측이 힘들다는 선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능특강에서도 이 설명이 서술되어 있고, 실제로 위의 두 선지는 상충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13. 순환론은 인간의 주체적 행동을 과소평가한다. (6 번 선지와 동치된다.)

→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설명할 때 숙명과 같은 불가사의한 힘을 강조합니다.